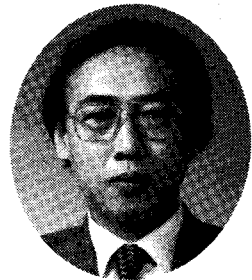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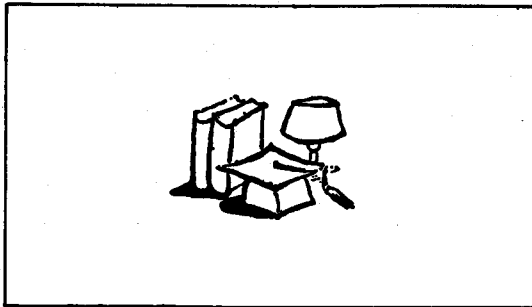


# 某月某日の日記

—“환경을 보전한다”는 사람이, 환경을 보전하는 사람을  
고소했다. 이제, 그 顛末을 말한다—



朴昌權

〈본회 고문·환경교육회 회장〉

지난 2월, 나와「全國環境管理人聯合會」李龍雲 회장은 月刊「公害安全」姜元敏 사장으로 부터 “명예훼손”과 “언론기본법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그 후, 오늘까지 나는 이 불쾌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왔다.

法の 공정한 판결을 조용히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그 顛末을 말한다.

이는, 그 동안의 내 침묵의 뜻을 착각하여, 더욱 기승을 부린 고소인을 나무라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믿을(그럴 환경인은 없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환경을 보전한다”는 사람이, 환경을 보전하는 사람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되었거나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한 사람으로서, 이 불행한 고소 사건의 經緯를 정리하는 것 뿐이다.

말하자면, 이 글은 고소를 당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많은 피해를 입은 피고소인으로서 내가 겪어야했던 고통과 그간의 여러 의문의 사실을 정리해본 나의 獨白일 뿐이다.

이 고소사건으로 그동안 環境廳長님을 비롯해, 선배 환경인 여러분과 동료, 후배 환경인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붓 때문에, 한때나마 「畵報」 발행 중단이라는 사태를 빚음으로써, 소식을 알 권리를 빼앗겼었던, 전국의 환경관리인들에게, 또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그동안의 여러 충격에도 信義를 잃지 않고, 끝까지 友誼를 보여준 李龍雲 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 某月 某日

“環境汚染”이라는 학술적인 측면은 물론, 이런 저런 일로 터져나오는 “公害”라는 것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敵을 막기 위해, 많은 「환경보전」과 「반공해」가 출발하고 있으나 지나친 경쟁의식과 주장의 중복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된다.

같은 길을 가는 수레끼리 서로 앞다투어 보았자, 손해 보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수레일 뿐이다.

서로 도와가면서, 밀어주고, 당겨주어야 먼 길을 외롭지 않게, 또 튼튼하게 빨리 갈 수 있다. 그러기를 바래서, 글을 쓰기로 했다.

이른바 「環境專門紙·誌」를 말한다」를 ...

## 某月 某日

첫 회가 나가자, 대단한 반응이 왔다. 누군가 해야 했던 말을, 속 시원하게 잘했다는 반응과, 지가 뭔데 감히 칼 보다 무섭다는 筆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고 눈을 부라리는 반응도 있었다.

그가 누구건, 보아 잘못되어가는 것 같으면, 충고해주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더구나 言論의 물결 10여년 동안, 고루 맞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筆들이 “環境”의 “環”字도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環境保護에 생애를 걸어 온 사람으로서, 더 빠른, 더 필요한 環境保全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것, 그것 자체도 環境保護임을 ...

## 某月 某日

某人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某人은 현재 내가 연재하고 있는 글(환경전문지·지를 말한다)에 某지는 말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미 다른 환경전문지를 말하고 있는데, 유독 한 매체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

그래서 순서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某月 某日

「핀랜드」회의 참석 준비로바쁜 아침이었다.

한 통의 봉함 엽서가 날아왔다.

“귀하에게 문의할 일이 있어오니 1987년 2월 9일 14시 안으로 당서 수사과 조사반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경찰서」에서 발부한 「출석요구서」였다. 경찰로 부터 特講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 보았을 뿐, 처음 받아보는 「출석요구서」다.

도무지, 집히는 바가 없어, 그 자리에서 「구로경찰서」로 전화했다.

“「公害安全」이라는 雜誌의 姜元敏 사장을 아십니까?”

“네, 알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맥을 고소했습니다!”

“왜요?”

“명예훼손으로 말입니다!”

## 某月 某日

環境人이 고소를 당해 是非가 일어났었던 것은 「해포 식용유 사건」의 權肅杓 박사님이 처음이며, 지난해의 環境관리인 朴雲錫 사건 그리고 이번의 사건이 세번째가 된다.

앞서의 사건은 문제의 제기가 오염이다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그래도 명색이 “환경을 보전한다”는 활자 매체가 환경인을 고소한 것이다.

## 某月 某日

「핀랜드」회의는 某日, 회의 참석을 위해 環境廳의 추천서도, 비행기 표도 준비해 놓았는데 ...

그래서 「公害安全」의 姜元敏 사장을 사무실 아래층 다방에서 만났다.

“무엇이 명예훼손이요?”

“「한마디로 비평, 비판의 여지도 없다」는 글

이 나와 내 잡지를 명예훼손 시켰요...”

“그래, 그 글만 갖고, 무조건 고소부터 했다는 이야기요?”

“기분이 나뻤오! 사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었고...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럼, 고소를 취하 하세요!”

“그 글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전주」 지사 계약 조건으로 2 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50만원을 선금 받았는데, 잔금 1 백 50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약하려던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얘기하리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해양통보를 했으니까!”

“?”

차라리, 汚染者가 내 글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했다면 덜 가슴 아팠을 일이었다.

그래도 명색이 「公害防止·環境保全」을 그 발행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래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創刊 때는 물론, 그후에도 필요하다면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울산」까지 쫓아가 「강연」을 해 주는 등 그래도 환경을 보전한다고 해서 도왔는데...

### 某月 某日

나의 出國 문제 때문에, 그동안 李龍雲 회장이 고소를 取下시키기 위해 東奔西走한 것을 알았다.

「公害安全」측에서는 내 글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다」고만, 주장하는 모양이다.

하기야, 友情 어린 충고를 「때렸다」 생각하니, 고소의 이유인 「명예훼손」도 「경제적인 손해」로 보는 모양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背恩이다!

그래서 핀랜드 회의 참석을 포기하기로 했다.

### 某月 某日

「良心」에 꺼릴 일 없어, 경찰서 출입이 겁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 보다 서, 너 배는 더 뛰어야 하는 처지라, 멀리 구로동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열심히 강의를 해야 했고, 이 신문 저 잡지에 글을 써야 했다.

특히, 하루 8 편씩 꼬박꼬박 써야 되는 KBS의 환경보호 계몽 방송 원고는 내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내가 고소당함으로써 받은 배반의 고통을 짓눌러, 원고에 쫓기는 그 시간만은 고소당한 고통을 잊을수가 있었다.

### 某月 某日

영동에 있는 Youth Hostel에 「환경관리인 연합회」 전국 支部長團이 모였다.

李龍雲 회장이, 「公害安全」姜元敏 사장으로 부터, 「연합회」와 「내」가 고소당한 사실을 밝히자 지부장들은 그럴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말한다.

“어떻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고소의 목적이 우리의 모임을 와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 회원의 연명으로, 항의합시다!”

“「공해안전」 불매 운동을 전개합시다!”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고문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法의 심판이 진행중이니까, 法的 판결이 날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서로 싸워서 得보는 것은, 汚染뿐입니다. 環境史에 창피한 일이고요...

내가 말을 할줄 몰라서, 아니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노를 참고 기다립시다.

시다.”

### 某月 某日

李龍雲 회장이 어처구니 없어하는 표정으로 찾아왔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公害安全」의 강원민 사장이 「전국 환경관리인연합회」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연합회」가 환경청에 등록된 단체냐고 묻는 진정서를 낸 모양인데 환경청이 그에 대해 환경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고 회신(87. 2. 23) 하자, 이를 多量 복사해, 그동안 우리 「연합회」를 物心兩面으로 도와주고 있던 각 업체에 우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득을 얻는 곳은 어디일까?

상식으로 따져 보건데, 환경관리인의 자발적인 모임인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가 발전함으로써, 배가 아플 곳은 「公害安全」이 아니다.

더구나 그 「연합회」 회보에 廣告라는 명목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의 廣告는 「公害安全」에서 손도 대지 않는 廣告다.

그런데 유독, 그런 廣告 기업에 집중적으로 「연합회」를 불법 단체로 낙인 찍음으로써, 득을 얻으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알듯, 모를듯... 보일듯, 말듯한 추잡스러운 배경을 개탄한다.

### 某月 某日

姜元敏 사장의 고소사건 이후, 어찌 되었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고, 서글픈 일이라 침묵을 지키고 있자니, 「公害安全」의 편집 책임을 맡고 있다는 생면부지의 羅英男이라는 자가 시비를 다 걸어온다.

즉, 「公害安全」 2월호에 “讀後有感”이라는 題下로 내 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나를 人身 공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버르장머리 없이...

### 某月 某日

나는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몇가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의 고소는 내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가 목적이었는지 그 동기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목적이였다면, 왜? 구태여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가 등록 단체냐? 아니냐? 를 환경청에 묻고, 그 대답을 애써 복사해,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를 도와주고 있는 광고업체에게 들렸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日益發展하고 있던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의 와해와 「연합회보」의 발행중단을 목적으로 했다면, 어쨌거나 姜元敏 사장은 그간의 여러 사실 등을 감안해서라도,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번 짚은 내게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常識이고, 그것이 그간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 道理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글이 나가기가 무섭게 (실제로 「연합회보」는 「公害安全」에는 우송도 되지 않는다.) 이때다(?) 싶게, 곧바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姜사장의 自意냐? 第三者의 惡意에 의한 부추김 때문인가?

### 某月 某日

그동안 몇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려 왔던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가 정식으로 「환경청」에 단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회보」도 「문화공보부」에 의해 월간 발행의 등록이 나왔다.

“전화위복”이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그 동안의 경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環境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겠는데...

전국의 환경관리인 동지들이여!

단결하여, 우리의 권익을 지킵시다!